

# 근대 교과서와 기행문 성립에 관한 연구\*

- 일제 강점기 조선어 교과서에 나타난 명승고적을 중심으로 -

구자황\*\*

|| 차례 ||

- I. 문제제기
- II. 명승고적의 근대적 변용과 상징체계
- III. 명승고적의 교과서 수용 원리와 기행문 성립 과정
- IV. 결론

## 【국문초록】

이 글이 주목한 것은 근대 교과서에 등장하는 이른바 명승고적(名勝古蹟)의 근대적 변용과 그 의미이다. 일제 강점기 조선어과 교과서와 동시대 민간 독본에 나타난 특정 지역이나 장소를 통해 교과서가 공간을 수용하는 방식 및 그것이 갖는 문화사적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근대적 장르로서의 기행문이 성립되는 과정을 살폈다.

백두산은 근대 초까지만 해도 크게 주목 받는 공간이 아니었다. 한일병탄 이후, 제국의 심장지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조선의 정치 공동체가 근대적 상징체계로 불러낸 것이다. 이 시기 국토와 기행에 대한 문예공론장의 관심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산수유기(山水遊記)', '유산기(遊山記)'의 변용을 유행시켰고, 마침내 근대적 지리 관념 및 언론·교통의 발달을 토대로 상상된 정치 공동체의 미의식을 구현하기 위해 '기행문'이라는 신어가 만들어졌는바, 교과서는 이를 새로운 문종으로 적극 수용하였던 것이다.

---

\* 이 글은 2014년 11월 29일 한민족어문학회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다듬은 것이다. 토론을 맡아 비판과 조언을 건네주신 김경남 선생님과 논문의 제목 및 일부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조언해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 숙명여자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

일제 강점기 조선어 교과서에 수록된 명승고적과 이에 대한 인문지리적 사유 방식은 편찬 주제에 따라 양상이 달라졌다. 총독부가 펴낸 관찬 교과서는 단군과 백두산을 철저히 은폐하는 대신 의도적으로 금강산을 부각시켰다. 근대적 교통망을 홍보하는 한편, 관광을 매혹적으로 선전하면서 제국의 심상지리와 문명화를 체현하는 수학여행이 교과과정으로 적극 권장되었다.

반면 민간 독본에서는 단군과 백두산을 적잖이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명승고적과 관련된 단원이 많다. 실제 교과서를 보면, 이러한 양상은 기행문의 형태로 수용되었는데, 학습자의 집단적 정서를 체험하도록 하는 한편, 민족의 현실과 비애, 나아가 역사 혹은 미의식을 서술하는 방식이 부각된다. 특기할 것은 관찬 교과서가 민간 독본의 제제, 단원, 문종을 의식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이다.

관찬 교과서와 민간 독본의 구성 원리는 유사한 점이 많다. 하지만 기행은 매개로 한 지리, 장소에 관한 서술과 이를 소유하는 인문지리적 서술방식은 엄연한 차이를 보이는 데, 때로는 양측의 교과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때로는 조선 독자들을 대상으로 경합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 교과서, 기행문, 독본, 명승고적, 백두산, 수학여행.

## I. 문제제기

근대적 교육의 성립과 함께 각종 교과서가 등장했다. 당시 교육 당국이 국가 단위의 교육령에 따라 교육용 교재를 개발함으로써 오늘날 ‘국어과’로 분류될 수 있는 각종 교과서(조선어, 한문, 일어)도 출현하였다. 비슷한 시기 민간에서도 다수의 ‘독본’<sup>1)</sup>이 쏟아져 나왔다. 이는 근대 교육에 대한

1) 독본(讀本)은 근대적인 교과서 및 교육용 자료를 지칭하는 용어로, 근대 초 대부분의 교과서는 교과목 명 뒤에 ‘~독본’이라는 책명을 사용하곤 했다. 여기서는 주로 관찬 교과서인 ‘조선어독본’, ‘조선어급한문독본’과 구별하기 위해 민간에서 발행한 각종 교과서류를 ‘독본’으로 구분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열망이 개인적·사회적 필요를 넘어 민족적으로 고조되던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듯 근대 초부터 교과서는 관찬 교과서와 민간 독본이 결합하는 형국이었다.

이 글이 주목한 것은 근대 교과서에 등장하는 이른바 명승고적(名勝古蹟)의 근대적 변용과 그 의미이다. 이 과정에서 기행문이 형성되는 과정을 고찰하려고 한다. 이러한 관심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언론 및 교육의 장에서 호명된 명승 가운데 뚜렷한 하나가 백두산이다. 그렇다면 왜 백두산인가? 백두산이 호명된 이유와 배경은 무엇인가? 그러다가 교과서에서 점차 백두산보다 금강산이나 고적으로 관심이 옮겨간 이유는 무엇인가? 이 과정에서 일련의 인문지리를 호명하는 방식으로 채택된 기행문의 문종(文種)적 성격과 수용 원리, 그리고 문학으로서의 의미는 무엇인가? 말하자면 근대 국어과 관찬 교과서와 민간 독본이 특정 지리나 장소, 즉 공간을 수용하고 사유하는 인문지리적 방식 및 그 의미를 탐색해 보려는 것이 이 글의 문제의식이다.

이 글은 조선적인 것이 호명되는 방식과 논리를 다룬 논의<sup>2)</sup>, 일제강점기 수학여행에 관한 다양한 연구, 수학여행과 기행문의 관련성을 다룬 최근 논의<sup>3)</sup>에 기대어 있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이 글이 더 나아가고자 한 지점은 ‘국어과’(당시 조선어로 명명된) 교과서의 구체적 수록 양상과 그것

2) 서영채, 『최남선과 이광수의 금강산 기행문에 대하여』, 『민족문학사연구』24호, 민족문학사연구소, 2004.; 박진숙 외, 『‘조선적인 것’의 형성과 근대문화담론』, 민족문학사연구소 기초학문연구단, 소명출판, 2007.

3) 박진숙, 『기행문에 나타난 제도와 실감의 거리, 근대문학』, 『어문론총』54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1.6.; 김정남, 『이광수의 작문관과 기행 체험의 심미적 글쓰기』, 『어문론집』58집, 중앙어문학회, 2014.6.; 김정남, 『일제 강점기의 작문론과 기행문 쓰기의 발달 과정 : 1920년대 이후의 문장론과 기행 장르 인식을 중심으로』, 『우리말글』62집, 우리말글학회, 2014.9.; 조운정, 『근대 조선의 수학여행과 기행문 쓰기의 방법』, 『동방학지』168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4.12.

의 장르적 관습, 교과서 간의 영향과 경합 과정, 그리고 미의식의 차이 등이다. 이러한 논의는 교육이나 학교를 지배이데올로기의 재생산구조로 파악한 부르디외의 논의<sup>4)</sup>, 식민 지배의 담론과 쓰기를 통해 전유의 가능성을 제기한 탈식민주의 논의<sup>5)</sup>, 교육을 통한 정치체의 구현을 언급한 발리바르식 논의<sup>6)</sup>를 한국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II. 명승고적의 근대적 변용과 상징체계

풍경 하나. 영화 <인터스텔라>(2014)식으로 시간을 거슬러 가보자. 다음은 일제 강점기 어느 대중 강연회 풍경이다.

본사 주최의 백두산 강연회는 예정과 같이 제작일 오후 여덟시부터 종로 중앙청년회관에서 열리었는데, 원래 조선민족에서 무한한 감흥을 일으키는 강연이라 정각 전부터 몰밀듯 밀려오는 군중이 뒤를 이어 순식간의 회장 안은 정결한 흰 옷 입은 사람들로 만원이 되고 장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수천의 군중은 다른 문밖에 몰려서서 돌아가지 아니함으로 그 혼잡은 실로 형언할 수 없었다. <...> 역사에 조예가 깊은 권덕규 씨가 ‘조선역사와 백두산’이란 문제로 그의 학식을 기울여 열변을 토하게 되었다. <...> 위대한 강산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례를 들어 조선 민족도 백두산 같은 웅대한 산 아래에서 근원이 발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조선인에게 너희는 영특한 민족이라는 교훈을 암시한 것이라고 하며 청중 속에서는 박수가 일어났다. 그 다음 단군이 탄생한 태백산이 백두산이란 말을 명쾌하게 증명한 후 은근히 우리 고대의 광영스러운 역사를 들어 무한한 감흥을 일으키고 동양의 모든 강한 나라가 이 백두

4) 피에르 부르디외, 최중철 역, 『구별짓기』, 새물결, 2005.

5) 호미 바바, 나병철 역, 『문화의 위치』, 소명출판, 2002.

6) 에티엔 발리바르, 진태원 역, 『정치체에 대한 권리』, 후마니타스, 2011.

산을 중심으로 일어난 말로 백두산의 더욱 거룩함을 말(하였다.)<sup>7)</sup>(이하 띄어 쓰기 및 밑줄 강조 - 인용자)

신문 기사를 재구성해보면, 첫 번째 연사인 권덕규(權惠奎)가 백두산에 얽힌 해박한 역사 이야기를 풀어 놓는다. 이어 등장한 민태원(閔泰援)은 백두산 탐험단 과정을 슬라이드도 없이 생생하게 묘사한다. 흰옷 입은 수 천 명의 청중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내고 민족적 자부심을 한층 고양시키면서 아마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그날 밤 그들의 가슴 속에 무엇이 남았을까? 2002년 월드컵이 <오! 필승 코리아>를 남겼다면, 3.1운동 후 조선 민중들은 <애국가>의 원형이 되었을 어떤 창가 같은 것을 부르지 않았을까? 그날 밤 식민지 조선의 청중들이 열렬하게 반응했던 그 무한한 감흥은 요즘 사람들이 백두산에 오르고 천지를 보면서 느끼는 감동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렇다면 이런 감흥과 감동은 어디서 온 것일까? 다시 영화 <인터스텔라>식으로 말한다면 누가 어디서 보내는 신호일까?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백두산 이해는 대개 주자학의 영향 아래 놓여 있었다. 즉 모든 산과 하천은 곤륜산(崑崙山)에서 시작하며 백두산과 조선의 공간을 이런 천하 지형 안에서 이해하였다. 조선 후기 제작된 각종 지도에는 천하주의적 정치-공간으로 이해된 백두산을 쉽게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8세기 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천하지도>에는 곤륜산에서 황하가 발원하는 것으로, 조선과 중국의 경계에 있는 백두산은 곤륜산보다는 작지만 비교적 큰 크기로, 또한 조선 산 중에서 유일하게 표기된 산으로 나타나 있다.

곤륜산은 모든 산의 첫 뿌리인데 그 정상에서 황하의 근원이 시작된다. 지

7) 「公開된 聖山の 神祕」, 『동아일보』, 1921.8.29.

금 백두산은 물에 담긴 돌이 퇴적하여 정상에 천지[大澤]가 있고, 물이 모래 밑으로 백 리를 흘러 강이 시작되는데 이것은 곤륜산과 흡사하다. 다만 그 강을 황하에 비교하면 백 리와 천 리의 차이가 있고, 물에 담긴 돌을 옥과 비교하면 크기와 가치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는 곧 백두산은 형체는 갖추었으나 규모가 (곤륜산에 비해) 미미한 것일 뿐이다. <...> 백두산이 곤륜산의 적통을 이어받은 큰 아들이며, 오악은 그 가까운 조상의 서자나 지자가 될 뿐인 것을 알 수 있다.<sup>8)</sup>

구한말, 대한제국기까지도 백두산의 상징적 영향력은 훨씬 제한적이었던 다. 당시 의욕적으로 개발한 학부 편찬의 국어과 교과서 3종 세트, 즉 『국민소학독본』(1895), 『소학독본』(1896), 『신정심상소학』(1896) 어디를 찾아 봐도 백두산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단원은 한 곳도 없다. 백두산이 국가의 다양한 상징물 속에서 드러나고, 당대인의 일상과 상징체계 안으로 들어온 것은 20세기 초였다. 바야흐로 조선에도 민족국가의 건설이 과제로 대두하고, 그런 관점에서 시공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조선의 근대적 상징으로 새롭게 조명받기 시작한 것이 단군(檀君)이다. 그리고 백두산은 단군 신화가 비롯된 공간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되었다. 백두산이라는 상징이 단군신화와 더불어 근대 민족주의의 맥락에서 재구성되었던 것이다.

신채호는 백두산의 상징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sup>9)</sup> 백두산이 한반도 산맥의 조종산(祖宗山)에서 일거에 자주적이고 저항적인 민족정체성의 상징으로 확장되었다. 백두산이야말로 한민족의 가장 근원적인 원형을 기

8) 박종(朴琮), 『백두산유록(白頭山遊錄)』, 『당주집』권5-14, pp.48-49; 김정배·이서행 외, 『백두산,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p.383에서 재인용.

9) 신채호는 1908년 『대한매일신보』에 연재한 『독사신론』에서 태백산-묘향산 설을 비판하면서 단군신화에서 환웅이 땅에 내려와 나라를 세운 곳으로 표기된 태백(太白)은 다름 아닌 백두산이라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명백한 실증은 없었으나 한민족의 독립적인 정체성의 근거를 발견할 필요에 의해 광범위한 호응이 일었다.

억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사대주의적 억압을 견뎌내면서 민족의 순수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동시에 앞으로 세워질 민족국가의 희망을 상징하는 곳으로 승화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상징의 힘이 결코 만만치 않았다는 점이다. 그것은 근대 전환기 격변에 맞설 조선의 민족의식을 가슴으로부터 충만하게 하였고, 정신적·육체적 희생을 감수할 정도의 강력한 호소력을 내장한 것이었다. 이른바 저항적 민족주의의 담론의 에너지원으로 작동했던 것이다.<sup>10)</sup>

<동아일보>는 백두산의 근대적 변용과 인문지리적 사유 방식을 구현한 대표적인 매체였다. 당시 민족주의 계열의 신문은 공공의제를 설정하고 선도함으로써 공적 담론을 이끌었다. 특히 문예공론장의 형성을 통해 공적 지식의 증대에 기여하였고, 교과서를 비롯한 출판·교육 등 이른바 문예공론장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이 과정에서 문학(교육)의 지평이 확보될 수 있게 해주었다.

<동아일보>는 1921년 사회부 기자였던 소설가 민태원과 사진반 탐험대를 백두산에 보내고 사진까지 찍어오게 하였다. 이로써 단군이 태어난 성지이자 조선의 조종으로서의 백두산을 부각시켰다. 1921년 8월 6일자 <동아일보>는 백두산 탐험대의 보고를 시작하면서 백두산 천지의 사진과 함께 실린 기사를 통해 백두산은 4천 년 역사를 가진 조선 민족의 시조 단군이 탄강한 곳이라고 소개하였다. 이 탐험대의 특집 기사는 17회에 걸쳐 1면에 게재되었고 백두산 강연회, 응변대회, 사진전도 함께 열렸다. 이 글 2장에서 소개한 강연회 역시 그 중 하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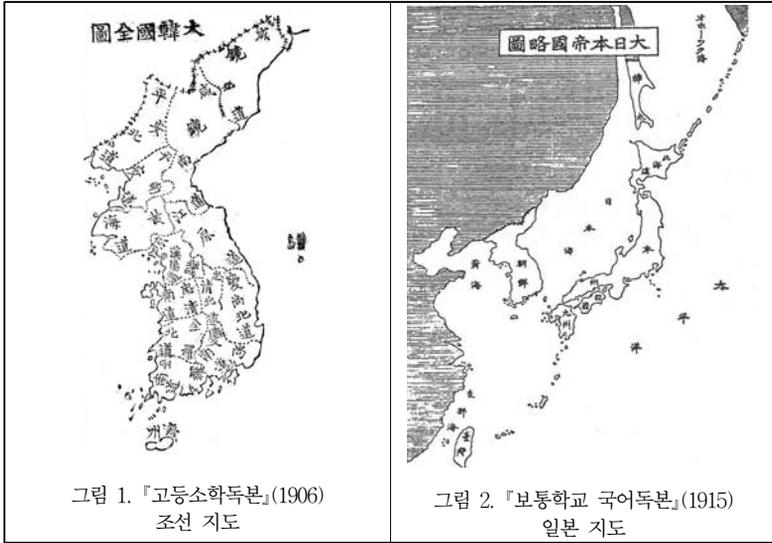
<조선일보> 역시 백두산 만들기에 적극적이었다. 1926년 최남선은 <조선일보>에 총 77회에 걸쳐 『단군론』을 연재하였고, 이어 백두산을 직접

10) 베네딕트 앤더슨, 윤형숙 역, 『상상의 공동체』, 나남출판, 2002. p.27 참조.

방문하고 7월 28일부터 1927년 1월까지 『백두산 근참기』를 연재하기도 하였다.<sup>11)</sup> 그런가 하면 당시 <조선일보> 부사장이었던 안재홍(安在鴻)도 백두산을 방문하여 1930년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백두산 등척기』를 연재하였다. 이들의 연재물에서 백두산은 민족의 ‘사랑’ 이요,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묘사되었고, 돌아온 후에는 마찬가지로 영화 상영, 사진전, 강연회를 통해 백두산을 조선의 상징체계로 만들어 나갔다.

이렇듯 19세기 이후 열강의 침략과 세계사적 질서의 재편 속에서 백두산은 한반도의 명운을 상징하는 체계로 변용되고, 사회 종교적 의미를 지닌 자연물로 승화되었다. 이러한 체계와 승화의 틀은 더 이상 왕의 신민(臣民)이 아닌 주권의식을 가지는 국민(國民)으로 거듭난 조선 민중들이 선택한 것이었고, 동시에 조선의 지식인들과 상상의 공동체가 창안한 것인바, 이전과는 다른 그 무엇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부여해줄 상징이 절실히 요청되었기 때문에 성립한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요청은 이제 막 개발·보급되기 시작한 근대 교과서에 적극 수용되었으며, ‘국어과’(당시 조선어과)의 형성과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었다.

11) 최남선은 백두산을 민족주의적 상징을 넘어 ‘동방’의 상징으로 확장시켰다. 그는 백두산과 한민족 역사의 근원인 단군의 결합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 중국, 인도 문명과 다른 유라시아와 일본을 포괄하는 ‘동방’의 밝은 문화의 지층이 있으며, 이 문화가 가장 잘 보존된 문화가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한민족이라고 주장하였다. 조선 후기 소중화(小中華)를 지리적으로 표상했던 지리적 상징이 최남선의 ‘불함문화론(不咸文化論)’에 와서 비중국적인 문화 단층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변모한 것이다.(김정배·이서행 외, 『백두산,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p.389 참조.)



조선 총독부가 발간한 『보통학교 국어독본』(1915) 3권 19단원은 “이것은 우리 대일본제국의 지도입니다.”로 시작한다. 【그림2】의 일본 지도는 단순히 국토지리를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 지도는 제국의 영토와 함께 기존의 공간과 미지의 공간을 구획하는 한편 조선인을 제국의 신민으로 재정립하고 있음을 표상하고 있다. 이 지도는 남쪽의 대만에서부터 일본 본토와 한반도가 펼쳐지고, 북으로는 사할린과 홋카이도를 포괄하는 광대한 공간이 일본 제국의 영토임을 말한다. 동북아시아의 전체를 포괄하는 이 광대한 영토는 천황의 햇살이 비치는 문명의 공간이다. 더 이상 일본은 아시아의 작은 섬나라가 아니라 반도와 대륙을 거느린 거대한 제국임을 선포하는 것이다.<sup>12)</sup> 그렇지만 그것은 아직도 검은 색으로 표시된 광활한 대륙을 미답지로 남겨 놓았다. 그래서 만세일계 천황의 통치 아래 “국위는

12) 강진호, 「‘국어’ 교과서와 차별적 위계화의 논리」, 『한국문학교육학회 자료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14.11.22, p.11.

날로 양양되고 국력은 달로 증진되”니 “국민 된 자는 더욱 더 분발 노력하여 황운의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sup>13)</sup>해야 한다는 것, 곧 중국 대륙을 새로운 영지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천황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바, 이것은 엄연히 식민지 조선에서 일어를 국어로 가르치는 교과서가 적시하는 내용인 것이다.

이처럼 일제는 제국의 심상지리를 교과서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정교하게 기술하는 미시권력을 통해 제국의 비전과 욕망을 시각화하였다. 그리하여 내선일체의 세계관을 구체화하고 천황의 신민으로서의 동일성을 강요해나갔던 것이다. 『보통학교 국어독본』(전8권, 1912-1915) 곳곳에서 영토에 대한 관심이 구체적으로 표명된 것은 그런 의도와 연결해 볼 수 있다. 『후지산』(4권 15단원), 『조선』(4권 16단원), 『조선의 지세』(5권 3단원), 『큐슈와 대만』(6단원 18단원), 『홋카이도와 사할린』(6권 19단원), 『혼슈와 시코쿠』(6권 9단원) 등이 차례로 학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조선어 교과서의 영토와 지리에 대한 높은 관심은 교과서 안에 제한적으로 반영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강력한 심상지리의 표상이 부재했고, 상징체계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조선 학부의 관찬 교과서 『신정심상소학』(1896)이 ‘태극기’를 삽화로 수용한 적은 있으나 단원으로 다룬 적은 없다. 【그림1】은 당시 휘문고보 교과서인 『고등소학독본』(1906)에 수록된 것으로, 이 책은 내용 전반에 걸쳐 민족주의적 지향이 강했고, 때문에 일제에 의해 금서로 규정된 바 있다. 그런데 이 책이 제기한 공간적·역사적 시원(始原), 즉 “사천여 년 전에 단군이 나라를 세우고 왕검성에 도읍을 정했다”는 서술은 강한 흡인력을 가질 만큼은 아니었다. “후에 자손이 쇠미함에 은나라 태자 기자가 동쪽에서 와서 단씨 왕가를 대신하여 왕이 됨

13) 『대일본제국』, 『보통학교 국어독본』3권, 1915.

에 8조의 교령을 설치하고 예의의 교화를 펼침으로써 인륜이 비로소 열렸다”<sup>14)</sup>는 서사 정도만을 덧붙였을 뿐 하나의 상징체계로 제시되는 수준은 아니었다.

한일병탄 이후, 조선의 민족주의 지식인들은 식민지 전략의 고통을 자아와 타자의 투쟁으로 전개되어온 조선통사(朝鮮痛史) 담론에 포함시켰다. 이 담론에서 백두산은 과거의 영광과 미래의 희망을 상징하고 사회 종교적 의미를 지니는 민족주의적 상징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당시 민족 언론의 공공의제 설정과 문예공론장의 선순환 구조는 이미 언급한 바 있거니와 최남선은 『심춘순례』(1926)의 머리말에 이런 담론과 심상지리의 의미를 “조선의 국토는 산하 그대로 조선의 역사이며, 철학이며, 시대의 정신”이라고 역설하기 시작했다.

20세기 초 조선은 민족주의를 이념적으로 실현할 민족 국가가 결여된 상태였다. 하지만 백두산을 포함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민족주의의 상징체계는 한국인들에게 큰 호소력을 발휘하였다.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은 새로운 언어[신문체]와 교과서[독본], 새로운 공론장[신문, 잡지]을 통해 민족주의 담론과 상징체계의 기반을 효과적으로 전파했다. 백두산의 상징은 근대로 접어들면서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에너지와 의미로 충전되었던 것이다. 기행이라는 신어가 등장하고, 기행문이 창안되고, 종교적 의미로 격상된 순례가 유행처럼 번졌다.<sup>15)</sup>

하지만 백두산 상징은 아무런 기반 없이 창조된 것이 아니다. 과거의 양식과 전통에 기반을 두고 새로운 환경과 담론에 의해 재구성된 것이다. 아

14) 김찬기 편역, 『고등소학독본』, 도서출판경진, 2011, 3과 「대한」 중에서.

15) 이광수, 「금강산유기」(1922/1924); 최남선, 「풍악기유」(1924); 최남선, 『심춘순례』(1925); 최남선, 「금강예찬」(1928); 현진건, 「고도 순례 경주」(동아일보 1929.7.18.~8.19); 현진건, 「단군 성적 순례」(동아일보 1932.7.29.~11.9) 등이 대표적이다.

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많은 ‘유산기(遊山記)’를 통해 장르적 관습이 이미 축적되어 있었다. 여정, 감상, 관찰, 보고 등의 요소는 이전부터 쌓아온 익숙한 장르 관습이었다.

표 1. 백두산 유산기<sup>16)</sup>

번호	제목	저자	연도	출전	비고
1	북정록	김지남	1712		
2	북정일기	박권	1712		
3	백두산기	홍세태	1712	유하집 권9	
4	백두산기	이의철	1751		
5	백두산유록	박종	1764	당주집 권14	
6	유백두산기	서명응	1766	보만재집 권8	시문독본 2권 2과에 『백두산 등척』으로 수록
7	백두록	권필칭	1775	오담선생문집 권1	
8	유백두산기	서기수	1809	소재집 권3	
9	백두산일기	이중하	1885		

서명응(徐命膺, 1716-1787)은 북학파의 비조로 일컬어질 정도로 실용적 학문에 관심이 많았던 인물이다. 그는 1766년 백두산을 유람하고 적은 글에서 “우리가 산천의 경치나 즐긴다면 천박한 일이 될 것”이라고 하며, “관방의 지세를 살펴보는 것도 좋고, 북극성이 떠오르는 것을 관측하는 것도” 권장했다. 실제로 그는 유람 후, ‘상한의(象限儀)’라는 천체 관측 도구를 만들기도 하였을 정도로 실용적 사유와 관찰적 태도를 견지한 바 있다. 『시문독본』은 이러한 서명응의 실학적 미의식을 하나의 단원으로 뚜렷하게 수용하고 있다.

백두산은 이렇게 근대 교과서 안으로 호명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아래에

16) 김정배 · 이서행 외, 『백두산,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p.17.

서 보는 바와 같은 교가, 창가 등으로 확산되어 가면서 조선 민족 심상 지리의 원형으로 자리 잡아 가게 된 것이다.

1. 백두산하(白頭山下) 넓고넓은 만주뜰들은  
 건국영웅 우리들의 운동장이요  
 거름거름 대(隊)를 지어 앞만 향하여  
 활발하게 나아감이 엄숙하도다
2. 대포(大砲)소리 앞뒤산(山)을 들들올리고  
 총(統)과 칼이 상설(霜雪)같이 맹열하여도  
 두렵없이 막막하는 돌격소리에  
 더의군사 흥겹하며 정신일었네
3. 억만대병(億萬:大兵) 기운대로 헤치고나아가  
 원슈달이 말우에서 떨어지던 것  
 늦은 가을 남우늪과 다름없고나
4. 개선문하 자유(自由)종을 땡땡올리고  
 삼천리(三千里) 에 독립기를 펼 펼 날닐제  
 만세만세(萬歲萬歲) 만세만세(萬歲萬歲) 우리나라에  
 만세만세(萬歲萬歲) 만세만세(萬歲萬歲) 우리동포(同胞)야<sup>17)</sup>

---

17) 국가보훈처, 『해외의 한국독립운동사료 14-일본편 4』, 1996. p.97에서 재인용. 「운동」이란 제목의 이 창가는 『보통교육창가집』(1910)에 <권학가>, <수학여행>, <학문가> 등과 함께 수록됐다. 이 창가는 이상준(李尙俊)의 『최신창가집(最新唱歌集)』(1918) 및 이기재(李起載)의 『열화당창가집(悅話堂唱歌集)』(1909)에도 전한다. 이런 운동가류는 학교의 중요 행사인 운동회 때 개막행사와 폐막행사에서 부르거나 행진 활동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부르던 노래이다.

### Ⅲ. 명승고적의 수용 원리와 기행문 성립 과정

풍경 둘. 백 년 전 조선의 학생들은 수학여행을 어디로 갔을까? 무얼 타고 갔을까? 이태준(李泰俊)이 휘문고보(徽文高普) 시절 1등상을 받았던 기행문을 재구성해 보면, 그들도 요즘 학생과 마찬가지로 들뜬 마음으로 수학여행을 갔다. 주로 경주, 부여, 개성 같은 고적지나 금강산 같은 명승지를 기차를 이용해 다녀왔다. 수학여행은 당시 교육당국이 제시한 교과과정에도 명시되어 있었는데, 지금도 그러하듯 가기 전에 목적지의 지리, 역사, 문화를 학습하고 갔다 와서는 으레 기행문을 썼다. 잘 쓴 글은 교지(校誌) 같은 데 실리곤 하였다.

地理 배울 때 보고 시프고 歷史 배울 때 보고 싶은 扶餘 歷史로 扶餘古蹟으로 扶餘 아! 이러한 扶餘를 이제, 남다른 友情들과 서로 손을 잡고, 절절한 情緒를 서로 풀어가면서 坦坦大路에 步調를 맞추도다. <…> 아! 이 王陵은 實로 사천년간 東洋 藝術에 代表的 古墳이다. 日本에도 없고, 支那에도 없고, 오죽 朝鮮에만 있는 자랑의 寶物이로다. 雄偉堅固한 墳이 構造와 珍奇華麗한 大理石에 神巧한 壁書는 실로 百濟의 魂이 모다 이곳에 뭉친 듯하도다. 천삼백여년 전 先祖들이 文物典章의 美를 갖초아 燥爛한 藝術界에 千古不朽의 이 大作을 感歎하면서 다시 一行에 섞여 半月 城跡을 지나 扶餘邑內에 到達하기는 午後 네시경이었다.<sup>18)</sup>

필자인 이태준은 학교에서 지리와 역사를 통해 배운 부여를 직접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들떠 있다. 그런데 이 글에서 주목되는 것은 조선의 수천 년 역사와 예술적 미의 기원을 공유하려는 필자의 사유이다. 일본에도 중

18) 이태준, 「부여행」, 『휘문』2호, 1924.(민중환, 『이태준 문학 연구』, 깊은샘, 1988, pp.50-52에서 재인용.)

국에도 없는 동양 예술의 정수를 직접 확인하고 감탄하는 이태준의 심상은 불후의 예술미와 그것을 가능케 했던 문물과 제도, 즉 찬란한 조선의 문화와 역사를 심미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sup>19)</sup> 독자들로 하여금 부여로 표상된 심상 지리 안에 조선적인 것을, 동시에 잃어버린 것을 환기시켜줌으로써 정치적 심미화의 가교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근대적 기행문의 이 같은 장르적 관습은 재래의 ‘산수유기(山水遊記)’나 ‘유산기(遊山記)’와는 확연히 다른 지점이다. 또한 이것은 논설과 설명의 방식과도 다르다는 점에서 문학으로 통하는 비밀의 문이 아닐 수 없다.

흥미로운 것은 기행을 통한 명승고적의 수용 원리가 교과서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관찬 교과서의 경우, 고적과 명승지를 다루되 철도를 중심으로 새롭게 부각되거나 가볼 수 있게 된 근대 신흥 도시를 다룬다. 문중 면에서는 설명, 서간, 기행을 끌고루 활용하지만 내용과 초점은 ‘국토지리’에 가깝다.(1930년대 4차 교육령기 관찬 교과서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산업’적 측면에서 기술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일본과의 지리적 위계화가 특징적이다.

예를 들면, 금강산의 지세며 경관을 기술하지만 일본의 후지산(富士山)과 대비하여 정치적·미학적 위계화를 동반하는 방식이다. 경주의 유적과 역사를 기술하지만 일본 나라(奈良)와 유사성을 언급하는 서술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수용 원리는 아래 예문이나 【표2】에서 보듯 관찬 교과서 전반에 편만(遍滿)한 것이었다.

제16과 富士山과 金剛山

富士山은 我國 本州의 中部에 突立하얏스니 그 높히는 一萬二千尺이나

19) 조윤정, 「근대 조선의 수학적행과 기행문 쓰기의 방법」, 『동방학지』168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4.12., pp.336-337.

되고 그 形狀은 마치 붓채를 펴서 격구로 세워 노은 것과 恰似하며, 山勢가 甚히 秀麗하고 雄壯하여 我國 古來의 名山이오. <…>

金剛山은 朝鮮의 名山으로 江原道の 東北部에 ?立하였스니 山勢가 優美 奇妙하고 石骨의 峯巒이 重疊한 故로 世上에서 一萬二千峰이 있다고 말하며 其中에 毗盧峯은 此山의 最高峰이니 높히가 六千尺이나 되오. <…>

富士山은 그 山容의 雄壯秀麗함으로 金剛山은 그 山姿의 優美幽邃함으로 公히 世界의 屈指하는 名山이오.<sup>20)</sup>

#### 제25과 新羅의 古都

邑의 東南四里에 있는 佛國寺도 新羅時代에 建設한 것인데 建築·塔碑 등의 볼만한 것이 不少하고 그 後便 吐含山에 몸을 던져 石窟庵에 들어가면 穹窿한 石窟 속에 二十九體의 佛像을 周壁에 彫刻하였고 中央에는 一丈餘의 釋迦尊像을 安置하였는데 그 彫刻의 優美함은 東洋藝術의 자랑거리라하오.

慶州에 와서 聯想되는 것은 內地의 奈良이오. 奈良도 慶州와 同時代에 繁華하든 舊都인데 兩都의 遺傳된 建築美術 등이 互相 類似함을 보면 上古의 內鮮文明이 매우 密接하였든 것을 알 수 잇소.<sup>21)</sup>

표 2. 명승고적 수록 단위<sup>22)</sup>

번호	단원명	문종	교과서명	원문 출전 및기타
1	53과 등금강산기(登金剛山記)	기행문	『고등 조선어급한문독본』4 (1913)	『金剛山記』 (趙成夏)
2	22과 경성	설명문	『보통학교 조선어독본』3 (1923)	
3	11과 신의주에서	서간문	『보통학교 조선어독본』4 (1924)	
4	24과 부산항	설명문	『보통학교 조선어독본』4 (1924)	

20) 조선총독부, 『보통학교 조선어독본』, 조선서적주식회사, 1924, 5권 16과.

21) 조선총독부, 『보통학교 조선어독본』, 조선서적주식회사, 1924, 5권 25과.

22) 조윤정, 앞의 글, p.327에서 재인용.

5	11과 호남여행	기행문	『보통학교 조선어독본』5 (1924)	논산, 강경, 이리, 군산, 광주, 목포, 호남선의 여정.
6	16과 부사산(富士山)과 금강산	설명문	『보통학교 조선어독본』5 (1924)	
7	25과 신라의 고도(古都)	기행문	『보통학교 조선어독본』5 (1924)	경주와 나라 비교
8	8과 개성	설명문	『보통학교 조선어독본』6 (1924)	
9	17과 평양에서	서간문	『보통학교 조선어독본』6 (1924)	
10	44과 박연폭포	설명문	『고등 조선어급한문독본』4 (1924)	『東國輿地勝覽』
11	6과 개성	기행문	『고등 조선어급한문독본』4 (1924)	같은 내용의 글
	4과 개성	기행문	『여자고등 조선어독본』2 (1928)	
12	25과 금강산	설명문	『고등 조선어급한문독본』4 (1924)	『東國輿地勝覽』, 『擇里志』
13	2과 한양유기(漢陽遊記)	기행문	『고등 조선어급한문독본』4 (1924)	『湖東西洛記』 (錦園女史)
14	8과 평양 연광정(練光亭)	설명문	『고등 조선어급한문독본』4 (1924)	『東國輿地勝覽』

역사이자 종교이자 철학으로서의 국토, 나아가 시(詩)로서의 산하가 교과서에 뚜렷하게 기술되는 것은 관찬 교과서가 아니라 민간 독본에서 두드러진다. 『시문독본』(1916)과 『문예독본』(1931)은 여기서도 주목받을만한 텍스트임이 입증된다.

아래 표는 최남선의 『시문독본』(1916)에 실린 글을 종류에 따라 나눈 것 가운데 ‘기행’으로 분류될 수 있는 단원과 문종을 뽑은 것이다. 기행문은 총 18편으로 4권 전체를 기준으로 논설(33편) 다음으로 많고, 이야기(17편), 전기(12편), 창가 및 시조(12편), 설명(10편)에 비해 세 번째로 많이 수록된 주요 문종이다.

표 3. 『시문독본』 기행 단원<sup>23)</sup>

권-단원	제목	내용	문종	저자 / 출전
1권-03	千里春色 一	여정 (남대문-황주성)	기행문	
1권-04	千里春色 二	여정 (대동강-청천강)	기행문	
1권-05	千里春色 三	여정 (제석산-천지)	기행문	
1권-16	萬物草	금강산의 돌	기행문 (산수유기)	양봉래, 『만물초기』
1권-24	朴淵	박연폭포 기행	기행문 (산수유기)	이월사, 『유박연기』
2권-02	白頭山登陟	백두산 등정	기행문 (산수유기)	서명응, 『백두산기』 부분
2권-09	萬瀑洞	만폭동 기행	기행문 (산수유기)	이경석, 『풍악록』 부분
2권-16	上海서	상해 기행	서간문	이광수, 『청춘』 <sup>3</sup>
2권-21	華溪에서 해씨오름을봄	화계사 기행	기행문	
2권-23	五臺山登陟 (一)	오대산 기행	기행문 (산수유기)	김삼연, 『오대산기』
2권-24	五臺山登陟 (二)	오대산 기행	기행문 (산수유기)	김삼연, 『오대산기』
3권-03	瀋陽까지(上)	열하일기 (1911)	기행문 (번역)	박지원, 『열하일기』
3권-04	瀋陽까지(下)	열하일기 (1911)	기행문 (번역)	박지원, 『열하일기』
4권-11	嶺東의山水 (上)	영동의 산수 기행(1912)	기행문 (번역)	이중환, 『택리지』
4권-12	嶺東의山水 (下)	영동의 산수 기행(1912)	기행문 (번역)	이중환, 『택리지』
4권-15	幻戲記(上)	열하일기 (1911)	기행 서사 (번역)	박지원, 『열하일기』
4권-16	幻戲記(下)	열하일기 (1911)	기행 서사 (번역)	박지원, 『열하일기』
4권-20	海雲臺에서	해운대 기행 (1917)	기행문	이광수, 『오도답과기』 <sup>29</sup>

23) 서지목록은 구자황(2006), 박진영(2009), 임상석(2009)의 논문을 참조하였음.

기행을 통한 명승의 교과서 수용은 전(前)근대 성격의 ‘산수유기’, ‘유산기’에서부터 근대적 문체로 시도된 번역 기행, 그리고 근대적 성격이 두드러지는 기행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여기서 관찬 교과서의 기행문과 다른 점은, 우선 학생들이 쓴 기행문보다는 명망가나 문인들의 작품을 수록한다는 점이다. 이는 『시문독본』만의 특징이기도 할 터인데, 『시문독본』이 애초 문체를 창안하려 했고, 동시에 문범을 제시하려 했던 것과 관련이 깊다. 기행의 대상과 목적도 뚜렷하게 구별된다. 관찬 교과서는 금강산과 근대 신흥 도시를 다루고, 철도와 신작로를 중심으로 한 여정을 소개하는 등 주로 관찰에 치중한 기행이 많다. 반면 『시문독본』은 천지(天池)까지 이르는 백두산 가는 길과 북방정서를 여전히 강조하면서도 그 안에서 주체의 정서와 대상에 관한 세밀한 묘사, 나아가 미의식을 표출함으로써 기행 그 자체가 아니라 기행문을 통한 국토에 대한 상상지리의 전유와 정치적 심미화를 지향하고 있다. 이는 지리와 공간을 차별적으로 위계화했던 관찬 교과서의 시각과 확연히 다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시문독본』은 공간을 재배치하고 제국의 상상지리를 전복적으로, 조선적으로 재구성한 민간 독본이라 할 만하다. 아울러 혼종적인 형태로나마 근대 기행문의 지평을 제시한 교과서 텍스트라 할 수 있다.

한국문학사에 기행문이 하나의 문종으로 뚜렷하게 정착된 것은 이윤재의 『문예독본』(1931)에 이르러서다. 『문예독본』의 어문민족주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미 밝혀진 바 있거니와, 『문예독본』은 특별히 교육학적 용어나 교육 원리를 적용하지는 않았으나 제재 및 단원 구성 면에서 해방 이후 국어 교과서에까지 영향을 끼쳤으며, 각 단원마다 수록된 제재의 저자와 문종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특징이 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 같은 민간 독본의 제재 및 단원 구성이 관찬 교과서에 ‘역류(逆流)’하는 양상이며, 동시에 관찬 교과서가 이를 선택·수용하거나 배제하는 기준이다.

현진건의 『불국사에서』는 『문예독본』에 실린 대표적인 기행문이다. 현진건의 이 글은 당시 다른 관찬 교과서에도 빈번하게 실렸으며, 해방 이후에도 오랫동안 국정 교과서에 수록되었던 대표적인 교육정전이다. 이 글은 『고도 순례 경주』라는 제목으로 <동아일보>에 총 13회에 걸쳐 연재(1929.7.18.-8.19) 되었던 것을 『문예독본』이 ‘기행문’으로 분류하면서 교과서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문예독본』이 『불국사에서』라는 제목으로 수록한 부분은 아침 일찍 경주를 나서서 불국사역에 도착한 다음, 불국사(청운교-백운교-다보탑-석가탑-영지-대웅전)에서 석굴암에 이르기까지의 여정과 그 사이에 둘러본 대상물을 관찰·묘사하고 감흥을 드러내는 대목이다.(오늘날까지도 대부분의 교과서가 8회 불국사 이후 부분을 수록하고 있다.) 특히 기행문 중간에 삽입된 무영탑과 관련된 전설, 박제상과 관련된 전설과 시조(時調)로 인해 문학적으로 성가(聲價)가 높았다.

『문예독본』에 실린 『불국사에서』가 문학 혹은 기행문 연구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뭘까? 첫째, 직접적이고 강한 저자의 현실인식이 이념적 설명이나 계몽적 서사의 형태가 아닌 문학의 방식으로 드러난다는 점이다. 이 글은 역사적 사실이나 소재를 주된 제재로 삼아 글쓴이의 강한 현실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현진건이 역사를 다루는 이 같은 방식은 신채호, 최남선 등의 이전 세대와 현격한 차이가 있다. 현진건의 경우, 역사도, 전설도, 소설도 아닌 이 모두를 아우르는 방식으로 ‘기행문’을 택했다. 근대 초까지도 오해를 불식시키지 못했던 재래의 ‘문학’이 이광수가 주창한 Literature의 번역으로서의 ‘문학’과 달랐듯 현진건의 ‘역사’ 역시 더 이상 문화사나 민족 기원의 탐색도구가 아니었다. 역사라기보다는 하나의 문학적 양식, 말하자면 ‘역사의 문학화’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을 수록한 이운재의 『문예독본』은 역사 그 자체의 고답적 해설 혹은 계몽성의 노골적 전달보다는 한글 문장의 세련미와 유창성을 기반으로 한 문학을 선택한 셈이다. 『문

예독본』을 근간에서 지탱하고 있는 미문의식(美文意識)과 문학적 국어가 어우러지면서 『불국사에서』는 근대 기행문의 전범으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 이 글의 특성은 소설적 상상력과 치밀한 묘사, 사실적인 구어체와 섬세하고 개성이 드러나는 문체 등 언어의 유험성이 돋보인다. 대상을 현재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옛 문헌과 전설을 엮어 역사적 상상력을 펼치고 있다. 또 치술령(鷄述嶺)에 올라 박제상(朴堤上, 363~419)의 의연한 죽음과 그런 남편을 기다리다 망부석이 된 박제상의 아내를 생각하는 장면에서 시조를 삽입하는 등 형식면에서 재래의 장르적 관습을 계승하면서도 내용적으로 강한 현실인식과 심미적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일제가 펴낸 관찬 교과서는 『불국사에서』를 제재로 수용하고 있으나 그것의 지향과 미의식은 새로운 것에 대한 관찰과 여정이 주된 기행문으로 재구성된다. 예를 들어, 『중등교육 조선어급한문독본』(1933-35)이 수록한 『불국사에서』 불국사역에서 시작해서 토함산에서의 동해 일출로 이어지는 여정으로 시작과 끝을 이룬다.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 석가탑과 다보탑의 미학적 상찬은 건너뛰고, 무영탑과 박제상의 전설은 빼버린 채 석굴암 부분, 특히 관음보살의 관능미가 부각되는 대목과 옛 모습이 아직 남아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는 부분을 수록하고 있다. 아마도 이것은 박제상 전설이 상기하고 고양시키는 대목, 즉 “千秋의 빛나는 義氣를 남기고 倭國 木島에서 연기로 사라진 朴堤上의 義魂義魄은 지금 어디서 헤매는고!”와 같은 구절이 자극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민간 독본의 제재 및 단원 구성, 학습자(조선인)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제국의 심장 지리 안에서 선택과 배제의 기율 원리가 작동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재의 유사성, 다양한 방식의 기행 구현, 수학여행이 가져다주는 집단적 정서 체험 등이 아니다. 이러한 것들은 관찬 교과서가

보여주는 일종의 착시현상에 불과한 것이다.

변영로의 『백두산 갖든 길에』는 시조 양식의 기행시로 분류된다. 총 7개의 소제목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동아일보>에 연재했던 것을 재수록한 작품이다. 『문예독본』은 상권에서 이를 ‘시조’로 구분하여 전체를 수록하였는데, 『중등교육 조선어급한문독본』에서는 동일한 제목으로 4권 9단원에 수록하면서 1개의 소제목 아래 묶인 2수를 제외하였다.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외된 2수는 연시조의 가장 핵심적인 대목에 해당한다.

無頭峰 上에서 二首

一

무틀峰 기어 올라 千里 天坪을 내다보니  
넓기도 넓을시고 우리 옛터 예 아닌가  
인 흥이 잦기도 전에 눈물 벌써 흐르네

二

우리 임 귀천한 후 땃땃 滄桑 지냈관대  
옛 神墟 어디 가고 滿眼 蒼鬱 樹林뿐가  
생각이 예로 달리니 아득아득 하여라<sup>24)</sup>

‘무틀봉’은 무두봉의 다른 이름으로 백두산의 봉우리 가운데 하나이며, ‘천평’은 백두산 아래의 벌판을 가리킨다. 둘째 수의 ‘임’은 ‘한배검’, 즉 ‘단군’을 의미한다. 『無頭峰 上에서』는 무두봉에 올라 우리의 옛 터를 떠올리며 단군 이래의 역사와 변천 속에서 그 터에 수림(樹林)만이 가득한 상황에 대한 아쉬움, 허허로움을 담고 있다. 그러나 관찬 교과서에서는 두만강,

24) 이윤재, 구자황·문혜원 편, 『문예독본』, 경진, 2009, p.99.

정계비(定界碑), 천지(天池)를 언급하는 여정과 지배적 정조를 수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극적으로 고양될 수 있는 부분, 즉 백두산과 단군을 연상할 수 있는 2수가 목적의식적으로 배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예독본』에 실린 이병기의 「낙화암을 찾는 길에」 역시 비슷한 맥락을 확인할 수 있다. 관찬 교과서인 『중등교육 조선어급한문독본』에서는 제목을 낙화암의 상징성이 부각되지 않도록 「夫餘를 찾는 길에」로 바꾸어 수록하였다. 백제를 향한 궁녀(宮女)들의 절개와 민족혼을 느끼며 필자의 정서가 고양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삭제한 채 수록하였다.<sup>25)</sup>

이 바위에 나는 홀로 서 있다. 가마니 눈을 감고 그때의 광경이나 다시 그려 보자—꽃 같은 미인들은 수없이 떨어진다. 자개잠 금비녀는 내려지고 머리채는 흩어러지고 치맛자락은 소스라치며 펄렁거린다. 풍덩실풍덩실 물소리는 난다. 만일 그때 의자왕도 이리 몰려와 이 광경을 보았다라면 어찌나 되었을가. 그 어느 치맛자락을 잡고 같이 몸을 던져 죽어버렸을지도 모를 것이다. 과연 그랬더라면 金庾信·蘇定方 앞에서 행주의 치욕도 아니 받았을 것이다. 더욱이 의자왕의 일이 가엾게 생각된다. 차라리 몸을 백마강에 던져 어장리에 장할망정 저 국치에게는 더러이지 않겠다는 백제의 혼, 백제의 꽃은 영원히 이 인간에 살아 있을 것이다. 나는 이 백제의 꽃을 보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한다. 그리하여 나의 사랑하는 부여에도 가장 이 낙화암을 사랑한다.<sup>26)</sup>

정리하자면, 근대 조선어 교과서의 공간적 사유는 편찬 주체 및 지향, 즉 ‘실용간이(實用簡易)’ 중심으로 충량한 제국의 신민을 지향한 관찬 교과서와 기행문을 통해 현실 인식과 문학적 회로를 마련함으로써 정치적 심미화를 지향했던 민간 교과서 사이에 각각 차이를 보인다. 기행문은 이 과

25) 이 단원을 분석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할 것. 임순영, 『『中等教育朝鮮語及漢文讀本』을 통해 본 식민지 교과서의 이면 탐색』, 『국어교육』143, 한국어교육학회, 2013.

26) 이윤재, 구자황·문혜원 편, 『문예독본』, 경진, 2009, p.83.

정에서 근대 문학의 뚜렷한 문종으로 등장하였으며, 일정한 장르적 관습을 획득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명승과 고적을 포섭하여 인문지리적으로 사유한 기행문이 조선적인 것과 잃어버린 민족을 환기하는 근대적 양식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또한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관찬 교과서의 기행문 수용은 ‘조선인의 民度와 時勢에 맞게’ 구성되고 선택과 배제의 기율에 맞춰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실에 있어서는 아래 표에서 보듯 민간 독본의 제재와 구성 원리를 적극 수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른바 교과서 간의 경합에서 벌어지는 ‘교섭과 역류’의 양상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sup>27)</sup> 아울러 관찬 교과서와 민간 독본의 명승고적 수용은 교과서 간의 상호 길항과 경합 양상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 과정에서 근대 기행문이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공간에 대한 인문지리적 사유가 문학적 국어를 형성하는 단초를 마련하고, 단순히 문식성을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 잃어버린 역사의식과 조선적 미의식을 형성하는 데까지 영향을 끼쳤던 셈이다.

표 4. 관찬 교과서와 민간 교과서의 기행문 관련 단원

단원명	민간 독본			관찬 교과서	비고
	시문독본 (1916/1922)	중등조선어 작문 (1928)	문예독본 (1931)	중등교육 조선어급한문독본 (1933-35)	
해운대에서	○	○(3-15)		○(1-15)	기행문
망군대	○	○(5-17)		○(3-11)	기행문
장미와 목단	○	○(2-13)		○(1-9)	수필
주시경	○	○		○	위인전

27) 일제 강점기 관찬 교과서와 민간 독본 사이에 확인되는 ‘교섭과 역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구자황, 『근대 독본문화사 연구 서설』, 『한민족어문학』53집, 한민족어문학회, 2008.12.

의기론	○		○	○(4-13)	논설문
봄	○	○(2-12)		○(2-3)	
백두산 갖든 길에			○(상권)	○(4-9)	기행 시조
백두산 등척	○			○(4-8)	기행문
낙화암 가는 길			○(상권)	○(1-11) 부여를 찾는 길에	기행문
불국사에서			○(상권)	○(2-10) 석굴암	기행문
귀성	○			○	수필
공부의 바다	○	○(1-1)		○(1-28)	신체시
봄비			○(상권)	○(2-4)	자유시
가을			○(하권)	○(1-23)	
생활	○			○	논설문
박연	○			○	기행문
힘을 오로지 다함	○			○	논설문
활발	○			○	논설문
회계에서 해떠오름을 봄	○	○(2-16)		○(3-14)	기행문
내소와 개	○			○	소설
용기	○	○(2-25,26)		○	논설문

\*○은 동일 제재 수록을 의미함.

\*괄호 안은 교과서의 '권-단원'을 의미함.

#### IV. 결론

이 글은 근대 교과서에 등장하는 명승고적(名勝古蹟)이 재래의 장르관습을 바탕으로 근대적으로 변용되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그 예로 백두산의 상징체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폈다. 재래로 조선의 명승지이긴 했지만 백두산은 근대 초까지만 해도 크게 주목 받는 곳은 아니었다. 한일병탄 이후, 제국의 심장지리에 대응하는 식민지 지식인의 조선통사와 민족주의 담

론이 불러낸 근대적 상징체계로 등장한 것이 백두산이다. 그러나 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다. 기존의 ‘산수유기(山水遊記)’, ‘유산기(遊山記)’를 변용하는 한편, 근대적 지리 관념 및 교통의 발달을 토대로 근대적 민족국가의 미의식을 구현하기 위해 ‘기행문’이라는 신어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 글의 첫 번째 결론이 여기에 해당된다.

새로운 문종이 형성되는 과정은 이 글이 주목한 또 하나의 지점이었다. 교과서는 일제가 펴낸 관찬 교과서든 민간이 펴낸 대안 교과서, 즉 독본의 형태든 새로운 문종으로 기행을 적극 수용하였다. 명승고적의 근대적 변용이 기행문이라는 신어의 탄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인데, 기행문이 근대 문학(교육)으로 들어가는 비밀의 문도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것이 이 글의 두 번째 결론이다.

교과서 간의 교섭과 상호 경쟁을 구체적으로 실증할 때, 기행문을 문학(교육)의 정원으로 이끈 주요 텍스트는 최남선의 『시문독본』과 이운재의 『문예독본』이라 할 수 있다. 『시문독본』(1916)은 신문학 작품과 함께 재래의 산수유기나 유산기를 적극 수용하였다. 이운재의 『문예독본』(1931)은 기행문을 근대 문학으로 포섭하면서 교과서의 원형을 창안하였다. 그리고 이들과 경합하면서 지속적으로 단원이나 제재를 주고받은 일제의 관찬 교과서들도 기행문과 근대 문학의 형성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제 강점기 국어과(당시 조선어과) 교과서에 포섭된 명승고적과 이에 대한 공간의 사유 방식은 편찬 주체 및 교과서의 구성 원리 면에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 관찬 교과서는 단군과 백두산을 철저히 은폐하는 대신 의도적으로 금강산을 부각시켰다. 근대적 교통망을 홍보하는 한편 관광을 매혹적으로 선전하면서 제국의 심장지리와 문명화를 체현하는 수학여행이 교과과정으로 적극 권장되었다. 반면 민간 독본에서는 백두산을 언급하는 횟수가 적지 않았고, 금강산과 함께 고적지와 관련된 단원이 많다. 실제

교과서 단원 안에서는 학습자의 집단적 정서를 체험하도록 하는 한편, 민족의 현실과 비애, 나아가 역사 혹은 미의식을 서술하는 방식이 부각되었다. 이것은 지리와 장소를 통해 제국의 심장지리에 맞서거나 전유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논설과 설명 등 ‘경성(硬性) 문종’이 제한적이던 현실에서 수필이나 기행 같은 ‘연성(軟性) 문종’을 통해 공적 지식의 차이를 극복하려던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것은 일제의 관찬 교과서가 민간 교과서의 기행 관련 제재, 단원, 문종을 의식하면서도 이를 선택·수용·배제한다는 점이다. 관찬 교과서와 민간 독본의 구성 원리는 유사한 점이 많다. 하지만 기행을 매개로 한 지리, 장소에 관한 서술과 이를 소유하는 인문지리적 서술방식은 엄연한 차이를 보이는데, 때로는 양측의 교과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때로는 조선 독자들을 대상으로 경합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강진호·허재영, 『조선어독본』1-5, 제이앤씨, 2011.  
구자황·문혜윤, 『근대 독본 총서』1-7, 도서출판 경진, 2009/2011.  
국가보훈처, 『해외의 한국독립운동사료 14-일본편 4: 최신 창가집』, 1996.  
민충환, 『수주 변영로 시전집』, 부천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2010.  
이강언 외, 『현진건 문학전집』6, 국학자료원, 2004.  
논설, 『매일신보』, 1914.2.7.-2.22.  
논설, 『한국민족 지리상 발전』, 『대한매일신보』, 1910.2.20.

### 2. 논문 및 단행본

- 강진호, 「'국어' 교과서와 차별적 위계화의 논리」, 『한국문학교육학회 자료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14.11.22., pp.1-14.  
구자황, 「최남선의 『시문독본』 연구」, 『과학과 문화』 3(1), 서원대학교 미래창조연구원, 2006.2, pp.1-12.  
\_\_\_\_\_, 「근대 독본문화사 연구 서설」, 『한민족어문학』53집, 한민족어문학회, 2008.12, pp.1-40.  
김경남, 「이광수의 작문관과 기행 체험의 심미적 글쓰기」, 『어문론집』58집, 중앙어문학회, 2014.6, pp.247-269.  
\_\_\_\_\_, 「일제 강점기의 작문론과 기행문 쓰기의 발달 과정 : 1920년대 이후의 문장론과 기행 장르 인식을 중심으로」, 『우리말글』62집, 우리말글학회, 2014.9, pp.281-304.  
김정배·이서행 외, 『백두산,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박진숙, 「기행문에 나타난 제도와 실감의 거리」, 『근대문학』, 『어문론총』54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1.6, pp.119-148.  
박진숙 외, 『조선적인 것의 형성과 근대문화담론』, 민족문학사연구소 기초학문연구단, 소명출판, 2007  
박진영, 「최남선의 『시문독본』 초판과 정정 합판」, 『민족문학사연구』40호, 민족문학사연구소, 2009, pp.385-426.  
서영채, 「최남선과 이광수의 금강산 기행문에 대하여」, 『민족문학사연구』24호, 민족

- 문학사연구소, 2004, pp.242-280.
- 임상석, 『『시문독본』의 편찬 과정과 1910년대 최남선의 출판 활동』, 『상허학보』25집, 2009, pp.33-53.
- 임순영, 『『中等教育朝鮮語及漢文讀本』을 통해 본 식민지 교과서의 이면 탐색』, 『국어교육』143, 한국어교육학회, 2013, pp.285-310.
- 정치영, 『사대부, 산수유람을 떠나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4.
- 조운정, 『근대 조선의 수학여행과 기행문 쓰기의 방법』, 『동방학지』168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4.12, pp.168-185.
- 베네딕트 앤더슨, 윤형숙 역, 『상상의 공동체』, 나남출판, 2002.
- 에티엔 발리바르, 『정치체에 대한 권리』, 후마니타스, 2011.
- 제임스 커런, 이봉현 옮김, 『미디어와 민주주의』, 한울아카데미, 2014.
- 마이클 크랭·나이절 스프리트 엮음, 최병두 엮음, 『공간적 사유』, 에코리브리, 2013.
- 피에르 부르디외, 최종철 역, 『구별짓기』, 새물결, 2005.

**Abstract**

A Study on the Modern Textbooks and Travelogue Established  
- Scenic spots appeared on the Japanese occupation and  
the Korean language textbooks -

Gu, Ja-Hwang

This study focused on the modern transformations of the scenic spots and places of historic interest found in the modern Korean textbooks and also their meanings. The study examined the ways that the modern Korean textbooks compiled by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reading books accepted and thought of certain geographies and places or spaces and their meanings, looking into the nature of literature and travel(essays) formed and differentiated in the process.

Mt. Baekdu did not garner much attention until the early modern times. After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the colonial intellectuals had the discourses of Joseon Tongsa and cultural nationalism in response to the imagined geography of the empire, and those discourses made Mt. Baekdu emerge as a modern symbolic system. They created a new expression of “travel(essays)” to transform the old “Sansuyugi” and “Yusangi” and implement the aesthetic consciousness of a modern nation-state based on the modern geographic concepts and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The textbooks actively accepted it as a new literary genre.

There were similar and different patterns in the scenic spots and places of historical interest included in the textbooks during the Japanese rule and also the ways of thinking of their spaces. The textbooks compiled by the government put a thorough ban on Dangun and Mt. Baekdu and intentionally highlighted Mt. Geumgang. Processing sightseeing to be attractive based on the modern traffic network and allowing the students to personify the imagined geography and civilization of the empire, school trips were actively

recommended as part of the curriculum. The private reading books mentioned Mt. Baekdu a lot and contained many units related to places of historic interest such as Mt. Geumgang. They had the students experience the collective sentiment in the actual units of textbooks and highlighted ways of describing the reality, grief, history or aesthetic consciousness of the people. That was the way they stood against the imagined geography of the empire or possessed it exclusively through geographies and places. It is interesting that the textbooks compiled by the government were conscious of the materials, units and literary genres in their private counterparts and actively accepted them. Although the textbooks compiled by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reading books had different principles of composition, they exchanged influences and competed against each other in the ways of describing and thinking of geography and space via travel.

Key Word : textbook, travel essay, reading book, scenic spot · place of historic interest, Mt. Baekdu, school trip.

구자황

소속 : 숙명여자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

주소 : (140-742)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 숙명여자대학교

전화번호 : 02-710-9822 / 010-2373-2378

전자우편 : pakua@sookmyung.ac.kr

<p>이 논문은 2015년 2월 28일 투고되어 2015년 3월 3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5년 4월 10일 게재 확정됨.</p>
--

